

학령전기 자녀 아버지의 양육행동

이 자 형* · 김 혜 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거에는 어머니의 역할로만 여겨졌던 양육행동이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해 아버지도 함께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시대적 요구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의 역할은 단순한 경제적 제공자를 벗어나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라는 인식 변화가 나타났으며, 점차 과거의 도구적 역할만이 아니라 표현적 역할도 수행하는 양성적인 아버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김영희, 1998; Tiller, 1995).

가족의 건강과 관련하여 간호학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의 역할은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아버지의 양육 역할은 적절한 아동 양육에 대한 정보와 교육 부족, 그리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과소평가되고 있다(홍경자 외, 2003).

따라서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이 최근 들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과 관련된 연구에서 배제되었으며, 간호학에서도 아동간호를 위한 중재 대상으로 연구된 적이 많지 않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어머니의 양육 관련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다(김기현, 1998; 김현주, 1995; 도현심, 김지신, 1997; 이정희, 2000; 정덕희, 1998; 정황순, 1996). 1990년대에 이르러 국내 연구에서는 성장기 자녀의 성역할 획득, 인지학습, 성취동기 등 제반 영역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상당히 다른 유형으로 자녀 양육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아동을 돌보는 시간은 비록 어머니보다 적지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비슷하거나 클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광웅, 박성연 역, 1996; 성수현, 1996; 최경순, 1992).

특히 학령전기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증가되며 성역할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 가톨릭상지대학 간호과 교수

교신저자 김혜영 : hye3268@mail.csangji.ac.kr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즉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 유형을 알아보고, 또한 대상자 특성에 따른 양육행동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가족 중심의 아동간호 수행을 위한 아버지의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행동을 알아봄으로써 이를 아동간호 현장에서 제공하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양육관련 특성에 따라 파악해 보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대구·경북지역 및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며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 200명이다. 현재 자녀와 함께 동거하고 있으며, 조부모의 양육 도움없이 배우자와 함께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3. 자료수집 방법

만 3-6세의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및 서울·경기지역의 어린이집 원장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받은 후, 부모 모임이나 아동편에 연구목적을 제시한 가정 통신문과 설문지를 배부하여 1주 후에 수집하였다.

1) 측정 도구

· 양육행동 :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 측정도구는 Bigner(1977)의 양육행동 검사도구를 양미경(1996)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18문항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자 3명이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양육 행동은 4개 영역(일상생활 활동, 야외생활 활동, 놀이 상호작용 활동, 훈육 지도 활동)으로 나누어지며 4점 likert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합당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2)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양육관련 특성 분포는 서술 통계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양육 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행동 수준의 차이 비교는 t-test 및 ANOVA 검증을 이용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는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

다. 평균 연령은 36.72 ± 3.71 세이며, 학력은 대학 졸업이 가장 많았다(110명, 55%). 직업 유형에서는 일반사무직이 64명(32.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전문직 38명(19.0%), 기술직 36명(18.0%)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월평균 가정수입인 250만원을 기준(한국노동연구원 자료, 2004)으로 하였을 때 250만원 미만인 129명(64.5%)으로 많았다. 아내가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07명(53.5%)으로 없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119명(59.5%)으로 반수 이상이었으며, 자녀가 1명인 경우는 57명(28.5%) 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00)

특성	구분	빈도(%) 혹은 평균±표준편차
나이(세)	39 >	148(74.0)
	40 <	52(26.0)
	M±SD	36.72 ± 3.71
교육수준	고졸 >	67(33.5)
	대학 졸업	110(55.0)
직업	대학원 이상	23(11.5)
	단순노동	10(5.0)
	사무직	64(32.0)
	기술직	36(18.0)
	전문직	38(19.0)
월수입(만원/월)	서비스직	25(12.5)
	개인사업	27(13.5)
	250미만	129(64.5)
아내 직업	250이상	71(35.5)
	없다	93(46.5)
자녀수(명)	있다	107(53.5)
	1	57(28.5)
	2	119(59.5)
	3이상	24(12.0)

2. 대상자의 양육관련 특성

대상자의 양육관련 특성은 결혼생활 만족도, 직업만족도 및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2>. 결혼생활은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0명(60.0%)으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직업에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95명(47.5%), 보통이

다고 응답한 경우가 92명(46.0%)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아버지의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180명, 90.0%)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18명(9.0%) 있었다. 아버지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직장에서 시행될 때 신청할 의사가 있는가를 물었을 때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62%)이었다.

<표 2> 대상자의 양육관련 특성 (N=200)

특성	구분	빈도(%)
결혼 생활만족도	만족	120(60.0)
	보통	69(34.5)
	불만족	11(5.5)
직업만족도	만족	95(47.5)
	보통	92(46.0)
	불만족	13(6.5)
직장내 육아휴직제도	없다	180(90.0)
	있다	2(1.0)
	잘 모른다	18(9.0)
육아휴직 희망여부	희망하지 않는다	66(33.0)
	희망한다	124(62.0)
	생각해본적 없다	10(5.0)

3. 대상자의 양육 행동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 수준을 평균과 표준편차로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양육행동을 4개 하부 영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놀이 상호작용 활동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2.80 \pm .59$), 그 다음이 일상생활 활동 영역($2.41 \pm .58$)과 혼유지도 영역($2.40 \pm .93$)이었다. 가장 낮은 영역은 야외생활 활동($2.25 \pm .85$)이었다. 양육행동을 항목별로는 '자녀에게 신체적 애정표시를 한다'가 $3.04 \pm .71$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 아내와 함께 의논한다'가 $2.89 \pm .98$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자녀의 옷을 세탁한다'가 1.67 ± 1.17 , '자녀와 함께 놀이동산과 공원에 간다'가 1.79 ± 1.99 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자의 양육행동

(N=200)

영역	항목	평균±표준편차
일상생활 활동	자녀가 잠잘 시간이 되면 잠자리를 보살펴준다	2.52±.77
	아내가 바쁘거나 외출하면 자녀와 함께 있다	2.75±.73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한다	2.64±.71
	자녀에게 수유하거나 밥을 먹인다	2.39±.77
	자녀가 울거나 짜증을 내면 달래준다	2.64±.60
	화장실 가는 것 및 옷 입는 것을 도와준다	2.72±1.42
	자녀의 식사를 준비한다	1.97±1.15
	자녀의 옷을 세탁한다	1.67±1.17
	소계	2.41±.58
아외생활 활동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에 데려간다	2.35±.80
	자녀를 씻겨주거나 함께 목욕탕에 간다	2.49±.84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다	2.38±1.44
	자녀와 함께 놀이동산이나 공원에 간다	1.79±1.99
	소계	2.25±.85
놀이 상호작용 활동	장난감이 고장나면 고쳐준다	2.67±.78
	자녀의 필요한 물건,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놀아준다	2.70±.85
	자녀에게 신체적 애정표시를 한다	3.04±.71
	소계	2.80±.59
훈육지도 활동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 아내와 함께 의논한다	2.89±.98
	자녀와 단둘만의 시간을 갖는다	1.97±2.01
	자녀의 훈육(버릇 들이기)에 시간을 갖는다	2.35±1.06
	소계	2.40±.93
	전 체	2.44±.56

4.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행동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행동 수준을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즉, 아버지의 직업 유형(F=3.492, p=.005), 가정월수입(t=2.011, p=.047), 자녀수(F=4.641, p=.011)에서 유의한 양육행동 차이를 보여주었다. Scheffe' test 방법으로 사후검증 한 결과, 대상자 직업 유형에서는 전문직인 경우(2.65±.55)가 서비스직인 경우(2.11±.59)보다 유의하게 양육행동 점수가 높았다. 자녀수에서는 1명인 경우(2.59±.55)가 3명 이상인 경우(2.20±.41)보다 유의하게 양육행동 점수가 높았다. 가정월수입에서는 수입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2.38±.48)가 250만원 미만인 경우(2.55±.66)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표 4〉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행동

(N=200)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 혹은 F(p)
나이 (세)	39이하	2.46±.58	.882(.379)
	40이상	2.38±.49	
교육수준	고졸이하	2.36±.64	1.150(.319)
	대학 졸업	2.49±.51	
	대학원 이상	2.45±.49	
직업	단순노동	2.27±.54	3.492(.005)*
	사무직	2.42±.48	
	기술직	2.44±.43	
	전문직	2.65±.55	
	서비스직	2.11±.59	
월수입 (만원/월)	250미만	2.38±.48	-2.011(.047)
	250이상	2.55±.66	
아내 직업	없다	2.38±.48	-1.455(.147)
	있다	2.49±.61	
자녀수 (명)	1	2.59±.55	4.641(.011)*
	2	2.42±.57	
	3이상	2.20±.41	

* Scheffe test 결과 : 전문직·서비스직(직업), 1명·3명이상(자녀수)에서 유의함

〈표 5〉 대상자의 양육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행동

(N=200)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F(p)
결혼 생활만족도	만족	2.52± .56	3.932(.021)**
	보통	2.34± .53	
	불만족	2.15± .47	
직업만족도	만족	2.53± .48	1.684(.188)
	보통	2.38± .60	
	불만족	2.54± .41	
직장내 육아휴직제도	없다	2.43± .56	.177(.838)
	있다	2.67± .39	
	잘 모른다	2.43± .54	
육아휴직 희망여부	희망하지않는다	2.36± .58	2.272(.106)
	희망한다	2.49± .51	
	생각해본적 없다	2.64± .61	

** Scheffe test 결과 : 만족-불만족(결혼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함

5. 대상자의 양육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 행동

대상자의 양육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행동 수준을 비교해 보면 <표 5>와 같다. 즉 4가지 양육 관련 변수 중 결혼생활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양육행동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다($F=3.932, p=.021$). Scheffe' test 방법으로 사후검증 한 결과, 결혼만족도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2.52± .56)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2.15± .47)보다 양육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IV. 논 의

1. 아버지의 양육 행동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주된 양육자가 실제 상황에서 자녀를 대하는 구체적인 태도 및 행동을 말하며, 부모들이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은 부모가 의도하는 양육목표의 방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아동이 가지고 태어난 모든 능력을 전반적으로 잘 발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김순구, 2002; 홍경자

외, 2003), 이는 부모가 자녀와 긍정적이고 생동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서 이루어지므로 부모 자신이 자기 자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부모되기과 부모발달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점차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데 포함되는 특수한 부모발달 과정을 추적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Bryant & Zick, 1996; Canfield, 1995; Ross, 1979). 특히 정신분석학자인 Ross (1979)는 남근기인 학령전기동안 아버지와 의 밀접하고 원만한 관계는 아동들이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발견하고, 세계를 넓고 깊게 탐색하고 실험하는 행동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즉 학령전기 자녀의 정신분화와 개성의 형성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중요하며, 남근기에 애정과 존경에 기초한 아버지 동일시는 아동의 성정체감 발달, 자아 발달과 현실 검증 그리고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를 도울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

또는 부부가 함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107명(53.5%)으로 전체 대상자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998년 IMF 이후 가정내 경제활동의 주축이 남편중심에서 부부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화로 지적되는 것(강문희, 이광자, 송보경, 1998)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가장인 남편의 수입이 감소되거나 없어짐으로 인해 자녀 양육비나 사교육비 마련 또는 노후대책을 위해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은 증가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가정내 변화로 인해 남편과 아내 역할, 자녀 양육 역할의 재정립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대상자의 양육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직장에서 본인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서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80명(90.0%)이었으며, 만약 아버지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직장에서 시행될 때 신청할 의사가 있는가를 물었을 때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62%)인 반면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66명(33.0%)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2년도부터 육아휴직을 남녀 동등하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유급화하는 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생계에 대한 부담과 복직에 대한 불안, 사업장의 분위기 등으로 실제 희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법적인 보호가 되는 휴직 제도마저 자녀 중 12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을 때 가능하며, 부모 중 한 사람만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들의 육아 휴직제도 실효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학령전기 자녀를 둔 대상자의 양육행동 수준의 평균을 알아본 결과, 놀이 상호작용 활동 영역의 양육행동 점수가 가장 높았고(2.80±.59), 그 다음은 일상생활 활동 영역(2.41±.58)과 혼육지도 활동 영역(2.40±.93)이 높았다. 가장 낮은 영역은 야외생활 활동 영역(2.25±.85)

이었다. 즉 아버지는 자녀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상호작용이나 신체적 애정 표시 등을 통해 자녀양육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집안내에서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상생활 활동을 중심으로 양육행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Hoffman, 1989; Ishii-Kuntz, 1994; Stacy & Lynn, 1996). 보편적으로 아버지들은 어머니들보다 전체적인 양육시간은 적지만 놀이 활동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특히 아동이 3세 이후에는 아버지와 놀이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된다고 보았다. 또한 아버지와 자녀와의 놀이형태는 어머니보다 비교적 신체적이고, 자극적일 수 있어서 아동과 대면하면서 놀이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증가될 수 있다(Harrison, 2000). 하지만 아버지의 직장 근무시간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하는 야외 여가 활동 시간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주 5일제 근무제도가 보편화되면서 변화 개선의 여지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행동 수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직업 유형에서는 전문직인 경우(2.65±.55)와 서비스직인 경우(2.11±.59) 간에 유의한 양육행동 수준 차이가 있었다. 자녀 수에서는 1명인 경우(2.59±.55)와 3명 이상인 경우(2.20±.41)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의 월수입에서는 250만원 이상인 경우(2.38±.48)가 250만원 미만인 경우(2.55±.66)보다 양육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즉 전문직에 종사하고, 월수입이 많으며, 자녀의 수가 적은 아버지가 양육행동을 더 많이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내 경제적 요인이 아동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지속된 경제 악화로 인해 실직과 이혼의 증가, 가장의 자살 문제 등으로 가족해체 위기

에 처한 가정의 수가 증가되면서 자녀 양육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가족 중심 건강에 위협적이며, 성장발달 과정 중인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상자의 양육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행동을 비교해 보았을 때, 결혼생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양육행동 차이를 보여주었고, 특히 결혼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2.52±.56)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2.15±.47)보다 유의하게 양육행동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원활한 부부관계 및 남편으로서의 만족감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행동 수준이 높고, 양육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성영혜, 1998). 배우자와의 원만한 관계는 자녀 양육에 대한 대화를 원만하게 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정서적 지지를 통해 가정내에서의 정체감과 안정감을 가지게 할 것이며, 나아가 양육행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 행동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경순(1992)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 양육참여도가 증가될수록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성수현(1996)의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성취도가 증가되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최경순, 정현희(1996)의 연구에서 아버지 양육참여는 아동의 역할수용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김순구(200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장발달 증진, 자녀와의 애착형성, 사회성 발달, 부모역할 만족감, 가족간의 유대감 강화 등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Benzies, Harrison & Magill-Evans(2004)는 아버

지의 역할과 적극적 양육 참여가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상태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Hoffman(1989)은 아버지의 건강증진 활동 및 활발한 아동 양육 참여는 아동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역동성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Binger(1977)는 아버지 양육 참여 종류는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아동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보다 긍정적임을 강조하며, 아동을 직접 돌보는 것 외에도 같이 놀이와 운동을 함께 하거나 집안일을 거들고, 식사예절을 가르치는 일, 책 읽어주거나 아동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논하고, 신체적 애정 표시, 훈육, 건강 보살피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실제적으로 아동의 건강 상태와 건강행위에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간호현장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관련 연구 부족과 관심 소홀로 인해 아버지들은 자신의 자녀 양육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아버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녀 건강교육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향후 아버지들의 양육 행동에 대한 간호연구와 이해를 토대로 한 가족건강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 행동을 알아봄으로써 이들 아동간호 현장에 제공하는 아버지 양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즉 연구의 목적은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양육관련 특성에 따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지는 대구·경북지역 및 서울·경

기지역에 거주하며 37세의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 200명이었다. 자녀와 현재 동거하고 있으며, 조부모나 그 이외 다른 사람의 양육 도움없이 배우자와 함께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본 연구 목적에 동의한 자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측정도구는 Bigner(1977)의 양육행동 검사 도구를 양미경(1996)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18문항을 기초로 하여 간호학자 3명이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서술 통계 및 t-test, ANOVA test를 이용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대상자의 양육행동 수준을 평균과 표준편차로 알아본 결과에서는 놀이 상호작용 활동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2.80±.59), 그 다음이 일상생활 활동(2.41±.58)과 휴식지도 활동(2.40±.93)이었다. 가장 낮은 영역은 야외생활 활동(2.25±.85)이었다. 양육행동을 항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자녀에게 신체적 애정표시를 한다'가 3.04±.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해 아내와 함께 의논한다'가 2.89±.98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자녀의 옷을 세탁한다'가 1.67±1.17, '자녀와 함께 놀이동산과 공원에 간다'가 1.79±1.99 였다.
2.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행동 수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버지의 직업 유형 ($F=3.492$, $p=.005$), 가정월수입($t=2.011$, $p=.047$), 자녀수($F=4.641$, $p=.011$)에서 유의한 양육행동 차이를 보여주었다.
3. 대상자의 양육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 행동 수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4가지 양육 관련 변수 중 결혼생활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양육행동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었다($F=3.932$, $p=.021$).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

지의 양육행동은 가정내 일상생활 활동과 자녀와의 놀이 상호작용 활동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경제적 요인과 배우자와의 친밀감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아버지 양육행동은 자녀의 건강 상태 및 건강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간호현장에서 각종 가족건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자녀 양육에 취약한 집단 선정 및 편중되기 쉬운 아버지 양육 행동 등에 대한 간호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문희, 이광자, 송보경 (1998). IMF이후의 가족 생활 형태의 변화. 연구논총, 13집, 2-13.
- 김승복 (2004). 노동 통계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김광웅, 박성연 역 (1996) 아버지 역할과 아동발달 (마이클 램 편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기현 (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49-62.
- 김순구 (2002). 양육행동 개념 분석. 아동간호학회지, 8(4), 414-421.
- 김영희 (1998). 아버지의 영아 돌봄에 대한 문헌연구,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1권 1호, 75-85.
- 김현주 (1995). 어머니가 지각한 친정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인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김지신 (1997). 사회적 지지 및 부모역할 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6), 127-135.
- 성명혜 (1998).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수현 (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아동교육*, 5(2), 54-72.
- 양미경 (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이원영 (1982).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희 (2000). 어머니가 인지한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덕희 (1998). 유아가 인식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 3(1), 145-171.
- 정황순 (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간의 차이 및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 (1992). 아버지 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순, 정현희 (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 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6(1), 33-47.
- 홍경자 외 (2003). *아동간호학 I*. 서울: 수문사.
- Benzies, K. M. Harrison, M. J. Magill-Evans, J. (2004). Parenting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 Mothers' and fathers' voice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5(1), 9-24.
- Bigner, J. J. (1977). Attitude forward fathering and father-child activ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2), 99-106.
- Bryant, W. K., & Zink, C. D. (1996). An examination of parent-child shared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1), 227-237.
- Canfield, K. R. (1995). Effective fathering practices and fathering satisfaction related to father's life cour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 Harrison, M. J. (2000). Scores on the Nursing Child Assessment Teaching Scale for Father-Toddler Dyads. *Public health nursing*, 18(2), 94-100.
- Hoffman, L. W. (1989).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 283-292.
- Ishii-Kuntz, M. (1994). Parental involvement and perception toward fathers' role : A comparison between Japan and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Issues*, 15(1), 30-48.
- Ross, J. M. (1979). Fathering : A review of some psychoanalytic contributions on pater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60, 316-317.
- Stacy, J. R., & Lynn, K. W. (1998). Satisfaction with parenting : The role of marital happiness, family structure, and parents'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293-308.
- Tiller, C. M. (1995). Father's Parenting Attitudes During a Child's First year. *JOGNN*, 24(6), 508-514.

ABSTRACT

Key Words : Preschool children, Paternal rearing behavior

Paternal Rearing Behaviors of Preschool Children's Fathers

Lee, Ja Hyung* · Kim, Hye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paternal rearing behavior according to rearing characteristic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designed as descriptive survey.

This study's subjects are 200 people who live in Daegu, Gyeongbuk, Seoul and Gyeonggido and they have preschool children of 3-6years old. They live with their children together and they are bringing up their children with a spouse, and they agreed with this study.

It was measured by the instrument that 3 nursing scholars modified for content validity based on 18 items which developed parental behavior questionnaire of Bigner(1977).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PC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test. It was used Scheffe' test as post-hoc measurement. As a result of analysis is the following.

1. The results that are measured paternal rearing behavior b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re that 'activity of play interaction' score was the highest($2.80 \pm .59$), and then 'activity of daily living'($2.41 \pm .58$), and then 'activity of discipline'($2.40 \pm .93$). The lowest area was 'activity of outhouse'($2.25 \pm .85$). As examined paternal rearing behaviors by item, 'express physical affection to children' was the highest and the next items is 'consult with wife about children's rearing problem'. Item that was shown the lowest score was 'wash children's dress'.
2. Compared paternal rearing behaviors level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father's job type($F=3.492$, $p=.005$), family monthly income ($t= 2.011$, $p=.047$), children's number($F=4.641$, $p=.011$).

*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Sangji College

3. Compared paternal rearing behaviors level by rearing characteristic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of married life ($F=3.932$, $p= .021$).

In spite of Paternal rearing behavior can influence on children's health and health

activity, that is apt to exclude in various family health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in nursing field. Therefore, nursing researches about paternal rearing behavior will have to be needed to study in the future.